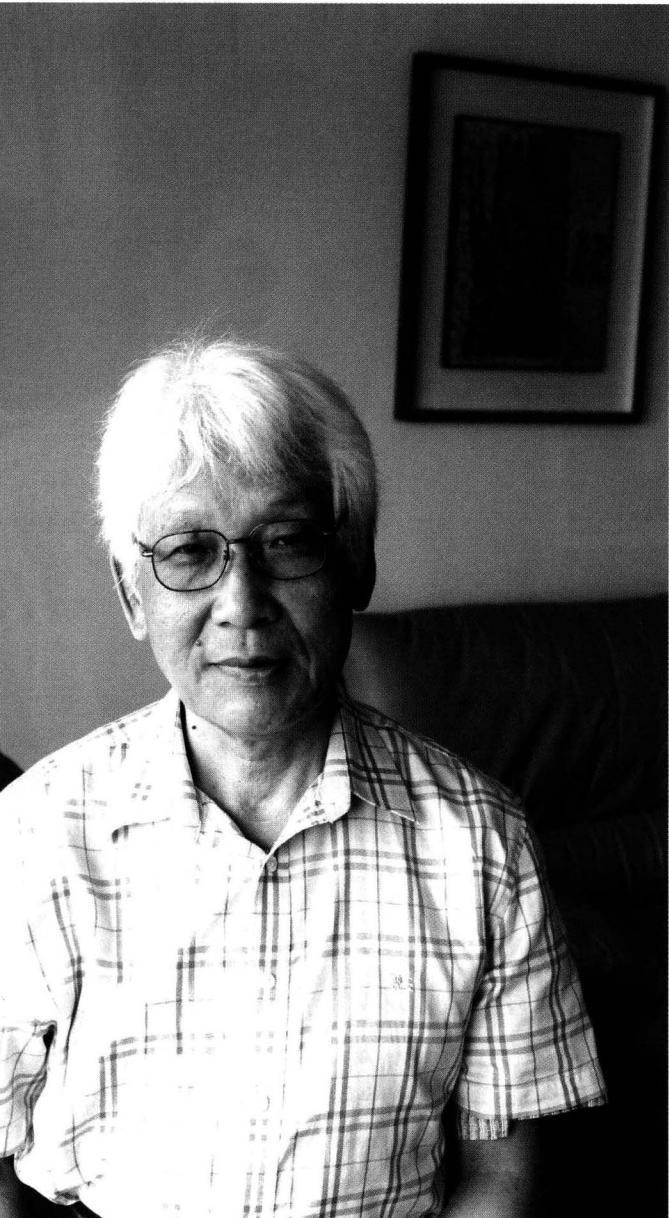


만해대상 학술부문 수상한 문학평론가 유종호

자신만의 문장이 있어야 진정한 평론가

글_이주연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지난 8월 12일 문학평론가 유종호(72) 연세대 석좌 교수가 만해 한용운의 문학과 사상을 기리는 만해대상 학술 부문을 수상했다. 영문학을 전공한 학자이자 비평가로서 특유의 해박한 문헌 섭렵과 균형 감각, 그리고 밀도 있는 해석과 문체로 한국현대문학 연구에 일가를 이룬 유 교수의 수상 소식은 여러 모로 뜻깊은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시대의 스승이고 선사인 만해 한용운 시인을 기리는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만해는 시인으로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문학 수업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40대 중반에 시집 한 권을 내면서 등장했습니다. 해방 직후 방한한 재미 소설가 강용홀 씨는 만해를 ‘인도의 타고르와 견주어도 손색없다’고 평가했고, 1970년대 중반 송옥이라는 평론가가 출간한 《님의 침묵-전편해설》은 한 시집에 대한 전편 해설로는 최초입니다.”

1957년 《문학예술》에 〈불모의 도식〉 〈언어의 유곡〉이라는 평론을 발표하며 등단한 이래 50년 동안 펼쳐진 유 교수의 학문과 비평은 역사주의와 형식주의 어느 면에도 치우치지 않는 총체적이고 심미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가 “개성적 문체를 가진 평론가”로 50평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평론가 대 문학작품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섬세하고 날카롭게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학의 실체는 작품을 통해서 자기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문학평론가는 문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은 작품을, 이론적인 틀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문학평론가는 미술평론가나 음악평론가와와는 다릅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작품도 언어로 되어있고 비평도 언어로 해야 하기에 비평도 글로써 훌륭해야 합니다. 풍부한 독서력, 이론과 안목을 드러내는 문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평가도 자기 스타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 교수는 동인문학상 본심 심사위원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학상 심사를 통해 한국 문학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문단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작가는 자기 세계의 감수성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마련입니다. 1950년대 작가의 작품에는 그 시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감수성이 있고, 1970년대의 작가는 그들만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최근의 작가들은 부박해지고 비속해진 현재의 세계를 실감나게 잘 다룬다는 점에서 훌륭합니다. 이런 감각적이고찰나적인 것은 잘 표현하는데 전반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통합적인 관점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젊은 작가들의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